

발해의 언어에 대하여

이동원¹⁾

일부 학자들은 발해인은 한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漢語(구두어)를 사용하였고, 발해와 일본의 외교무대에서 사용한 공통용어는 漢語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실제 정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당시 고구려·백제·신라·일본·발해 등 소위 東夷諸國에서는 모두 한자를 사용하였다. 貞惠·貞孝 두 공주의 墓碑, 발해왕과 일본천황 사이에 오고간 국서, 호태왕비릉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당시의 동이제국에서 한자·한문은 문화와 학문 그 자체였다. 『北史』, 『隋書』, 『新·舊唐書』 등 사료에 고구려·발해말갈 등을 소개하면서 “頗有文字及書記” “頗知書契” 혹은 “俗無文字”, “無書契” 라고 기록한 것은 모두 한자·한문을 놓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口語體인 구두어의 상황은 文語體인 서면언어와 완전히 달랐다. “東夷諸國”에서는 어려서부터 한자·한문을 배웠지만 漢語(구두어)를 배운 것이 아니다. 『舊唐書·高麗傳』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高麗...俗愛書籍, 至於衡門廛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²⁾

고구려에서는 지어 가난하고 노복같은 가정의 자식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하였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것은 한자·한문이지만 漢語(구두어)를 배운 것이 아니고 또 이 많은 학생들에게 한어(구두어)를 가르칠 선생도 없었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발해를 포함한 “東夷諸國”에서 한어를 할줄 아는 사람은 당의 수도나 내지에 수 년 내지 10여년 체류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파견한 僧人, 學生, 質子 등 소수인에 국한되어 있어 발해나 고구려 등 “동이제국”에서 한어의 사용은 보편성이 없었다.

『類聚國史』는 발해국의 사회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1) 中國 黑龍江省 社會科學院 前教授

2)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 東夷列傳 第一百四十九上

“無州縣館驛，處處有村里，皆靺鞨部落其百姓者，靺鞨多土人少，皆以土人爲村長”³⁾

이 기록에 보이는 말갈과 토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차이가 크지만 본문에서는 이 문제들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을 통하여 발해국에서 말갈인들은 그들의 “村里”나 “部落”에서 집거 상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발해국이 성립된 이후 고구려유민과 말갈인은 각기 자기들의 “村里”나 “部落”에서 집거하고 있었고 이런 집거상태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고 지어는 그 이후까지 유지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해국내의 고구려유민은 고구려어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말갈인은 말갈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발해시기도 발해국내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의 거주형태(집거 혹은 산거), 職業(농업 혹은 상업)과 인물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이런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한인주민이 양적으로 적었고 발해사회에 주는 영향력도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발해국의 일반주민 즉 고구려유민과 말갈인들이 한인과 접촉하여 한어를 배우거나 사용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고구려의 주민구성에 대하여 『魏書 高句麗傳』에 “民皆土著”이라 하였고 『北史 高句麗傳』에도 “人皆土著”이라 하였으며 백제의 주민구성에 대해서는 “其人種有新羅，高麗，倭等，亦有中國人”(『北史 百濟傳』)이라 기록하였고 신라의 주민구성은 “期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人屬”이라 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민구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人皆土著”이란 한인이 없다는 뜻으로서 고구려의 주민구성에는 한인이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新唐書·高麗』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隋末，其王高元死，異母弟建武嗣。武德初，再遣使入朝。高祖下書脩好，約高麗人在中國者護送，中國人在高麗者救還。於是建武悉搜亡命歸有司，且萬人”⁴⁾

이것은 고구려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모두다 당의 내지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인데 그 인수는 근 만명에 달했다. 이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에 남아있는 한인 거주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고구려와 발해시기에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한인과 접촉하면서 한어를 배울 기회는 적었으며 고구려사람이나 발해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하듯이 한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발해의 주민은 민족별로 “村里”나 “部落”에서 집거형태를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어는 그 이후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고구려유민과 말갈인 그리고 한인들이 발해가 존속하

3) 『類聚國史』卷一百九十三，渤海 延壽 十五年(796).

4) 『新唐書』卷二百三十六 東夷列傳 第一百四十五.

는 200여년간에 한 개의 통일된 새로운 민족 즉 발해족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청나라 말기에 특히는 기사·경오년 전후에 함경북도의 많은 농민들이 각종 재해에 시달려 중국동북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족농민들은 대부분이 조선족 마을에서 집거하고 있었기에 수십년이 지나도 한어를 잘 하지 못했다. 특히 한인과 접촉할 기회가 없거나 적었던 부녀들은 더욱 그러했다. 수많은 유럽이주민들이 북미대륙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지 200여년이 지났고 그들의 대부분이 산거하고 있었지만 미국족과 미국어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또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천여 년전에 집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고구려유민과 말갈인 그리고 한인들이 그것도 인원과 물자의 교류가 근대와는 비길 수도 없이 적었던 상황에서 발해가 존속하는 200여년 사이에 새로운 민족, 즉 발해인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발해가 존속하는 기간에 고구려유민은 고구려어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말갈인은 말갈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해국의 공식용어는 어떤것일까? 일부학자들은 발해와 일본과의 외교무대에서 한어로 의사소통을 한 실례가 있다고 하여 한어를 발해의 공식용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료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日本紀略』前篇十四(810년5月條)

“渤海使首領高多佛脫身留越前國 安置越中國給食 卽令史生羽栗馬長及諸生等 就習渤海語”

『續日本紀』卷三十二 (773年조) 에는 발해사신 鳥須弗의 말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近年日本使內雄等 住渤海國 學問音聲 却返本國 今經十年 未報安否”

高多佛이 羽栗馬長 등 일본인에게 발해어를 배워주고 일본정부가 內雄등을 발해국에 파견하여 발해의 “音聲” 즉 발해의 구두어를 학습하게 한 것은 발해와 일본사이의 외교무대에서 발해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續日本紀』의 상술한 기록에 의하면 발해의 건국초기라고 할 수 있는 760년대에 일본정부는 이미 內雄등 몇 사람을 발해에 파견하였고 그들이 발해어를 배우고 귀국하였으니 그들은 그후의 외교무대에서 발해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발해국의 공식용어 즉 “渤海語”란 고구려어가 아니면 말갈어이다. 그런데 『日本紀略』에는 고구려어라 하지도 않고 말갈어라 하지도 않았으며 “발해어”라고 하였다. 만약 발해사절단이 일본과의 외교무대에서 고구려어를 사용하였다면 그들의 국왕이 고려국왕이라고 자칭하기까지 한 발해의 사신 高多佛이 고구려어를 가르쳤다고 할 것이데 “고구려어”라 하지도 않고 “발해어”라고 한 것은 당시 외교무대에서 사용한 언어가 고구려어가

아니고 “발해어” 즉 “말갈어”임을 의미한다. 발해의 건국초기 唐人이 발해를 말갈이라 부를 때라면 “渤海語”를 “靺鞨語”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靺鞨語”라 하지 않고 “渤海語”라고 한 것은 발해국을 승인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日本紀略』에 나오는 “渤海語”란 고구려어가 아닌 말갈어라고 하였는데 이 말갈어란 어떤 것일까? 말갈어를 검토하기 전에 말갈에 대한 인식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말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발해사연구의 핵심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필자는 韓圭哲교수의 靺鞨論을 지지한다.⁵⁾ 한규철 교수의 말갈론에 의하면 말갈이란 그 어떤 특정한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唐人들이 중국동북부와 흑룡강류역에 거주하는 獯獵민족에 대한 他稱이며 泛稱이며 卑稱이다.

大氏一家를 위주로 하는 발해국의 통치집단은 스스로 말갈이라 稱한 적이 없다. 이것은 唐人이 발해인에게 부친 일반적인 他稱이지 自稱이 아니다. 아래의 사료는 말갈이 타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唐會要』卷96·渤海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貞元八年(792)閏十二月 渤海押靺鞨使楊吉福等三十五人來朝貢”

발해의 大氏를 위주로 하는 통치집단이 말갈이라면 “押靺鞨使”라고 하는, 즉 말갈을 감독·관리하는 관직을 설치할 수 없다. 이 기록은 발해국과 그의 통치집단이 말갈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唐人은 渤海를 粟末靺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他稱이지 自稱이 아니다.

靺鞨을 “泛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가 그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종족을 가리키는 종족명이 아니라 여러 개 내지는 수십개의 종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北史·勿吉傳』에는 말갈을 소개하면서 “其部落凡有七種”이라 하고 粟末部 伯咄部 安車骨部 拂涅部 號室部 黑水部 白山部등 종족명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舊唐書·靺鞨傳』에는 “其國凡爲數十部”라 하였고, 『新唐書·黑水靺鞨傳』에도 “黑水靺鞨.....雜爲數十部”라고 기록하였다. 말갈이란 그 어떤 특정한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술한 기록에 보이는 “七種” 혹은 “數十部”에 달하는 흑룡강유역에서 獯獵에 종사하는 종족에 대한 泛稱이다.

“七種”이라고도 하고 “數十部”라고도 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 아니라 唐人의 말갈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唐人들이 말갈의 매개종족명과 그 계통유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을 통털어 말갈이란 泛稱으로 호칭하였던 것이다.

부연하지만 그들의 종족수는 많았지만 매개종족의 인구는 적이나 적었다. 『後漢書·挹婁』에 말갈의 선조로 알려진 읍루를 소개하면서 “人形似夫餘 而言語各異...種衆雖少

5)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新書苑, 1994.

而多勇力”라고 기술하였다.⁶⁾ “種衆雖少”라고 한 것은 各種族의 인구가 적다는 뜻이다. 그중의 어떤 종족은 천 여년 후에도 인구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말갈이란 용어는 옥설이 아니라 대방을 존중하여 쓰는 용어가 아니고 경멸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 卑稱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 와서 중국인은 말갈이란 말 대신에 “靺鞨子”란 말을 쓰는데 흑룡강유역의 漁獵民을 통틀어 靺鞨子(다즈)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赫哲(허저)族을 러시아 사람들은 “길야크”라 하고, 당지의 조선 사람들은 “썰라깨”라 하고 中國人은 “魚皮靺鞨子”라고 하였다. 당지에서 많이 산출되는 연어(大馬哈魚)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다고 붙인 별명이기도 하다.

『隋書·靺鞨傳』은 말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靺鞨在高麗之北 邑落俱有酋長 不相總一 凡有七種 其一號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其二曰伯咄部 在粟末之北 勝兵七千 其三曰安車骨部 在伯咄東北 其四曰拂涅部 在伯咄東 其五曰號室部 在拂涅東 其六曰黑水部 在安車骨西北 其七曰白山部 在粟末東南 勝兵並不過三千 而黑水部尤為勁健 自拂涅以東 矢皆石鏃 即古之肅慎氏也 所居多依山水 渠帥曰大莫弗 曷咄 東夷中為強國 有徒太山者 俗甚敬畏 上有熊羆影狼 皆不害人 人亦不敢殺 地卑濕 築土如堤 鑿穴以居 開口向上 以梯出入 相與偶耕 土多粟麥稷 水氣鹹 生鹽於木皮之上 其畜多豬 嚼米為酒 飲之亦醉 婦人服布 男子衣豬狗皮 俗以溷洗手面 於諸夷最為不潔 其俗淫而妒 其妻外淫 人有告其夫者 夫輒殺妻 殺而後悔 必殺告者 由是奸淫之事終不發揚 人皆射獵為業”⁷⁾

『舊唐書』 말갈전에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고 “俗無文字”라는 말을 보충하였다. 말갈에 대한 초유의 기록은 상술한 신구당서의 기록과 유사하다. 이런 사서들이 묘사한 말갈의 특징을 요약하면 생산이 낙후하고(以射獵為業 偶耕, 矢皆石鏃) 땅굴 속에서 살며(鑿穴以居) 생활습관이 불결하며(以溷洗手面), 문화수준이 낮다(俗無文字). 총격으로 말하면 말갈이라 불리우는 종족은 唐人이나 고구려·백제·신라 등 종족보다 현저하게 낙후하였고 그때까지만 하여도 미개한 종족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唐人이 그들에 대해 경멸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卑稱을 사용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新唐書·渤海傳』에는 “渤海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라고 하여 발해국의 통치자 대씨 집단은 “粟末靺鞨”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粟末靺鞨”도 他稱이지 自稱이 아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씨집단은 자기를 말갈에서 배제하였으며 스스로 말갈이 아님을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대씨집단을 위주로 하는 “粟末靺鞨”이란 어떤 종족인가. 『舊唐書·渤海靺鞨

6) 『後漢書』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7) 『隋書』卷八十一 東夷列傳 第四十六

靺鞨傳』에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라고 하여 대씨집단의 종족유형을 고찰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대씨집단의 종족유형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또 하나의 사료가 있다. 그것은 발해가 일본과 외교관계를 건립하면서 발해의 제2대국왕인 大武藝가 일본의 淳仁天皇에게 보낸 국서이다. 이 국서에서 大武藝는 발해국의 건립을 알리고 “濫惣諸蕃。復高麗之舊居。有扶餘之遺俗”이라고⁸⁾ 하였다. “有扶餘之遺俗”이란 부여의 풍속습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부여의 풍속습관과 언어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해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말말갈이란 부여의 풍속습관을 보유하고 부여의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임을 알 수 있다. 『舊唐書 高句麗傳』에 “高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라 하고 같은 사서의 渤海靺鞨傳에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이라고 하였기에 속말말갈과 고구려는 같은 부여계통의 종족이며 兩者는 “別種” 즉 同種이라 볼 수 있다.

발해국의 공식용어인 속말말갈의 언어와 고구려어는 모두다 부여계통의 언어이며 매우 근사하여 고구려유민과 속말말갈인들이 교섭하는 데는 언어적 장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속말말갈이란 고구려의 “扶餘部落”(최치원)이라⁹⁾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의 近隣이었으며 속말말갈이 고구려에 합병되어서부터 발해국이 성립될 때까지 약 백년간 속말말갈인은 고구려인과 함께 살았으며 고구려군의 一員이 되어 唐軍과 싸우기도 하였으며 고구려가 멸망할 때에는 고구려민과 함께 당의 내지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그리고 大祚榮이 고구려의 장군으로서 활약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속말말갈인은 고구려시기부터 고구려인과 약 백년간 교락을 같이 하여 왔기에 두 종족 사이에는 언어적 장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구려인도 속말말갈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속말말갈인도 고구려어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해국의 창시자는 속말말갈 사람인 대조영이며 발해국이 존속하는 200여년간 대씨집단의 통치지위는 공고하였다. 고구려유민은 대씨집단을 옹호하였으며 고구려유민과 대씨집단 사이에는 그 어떤 불화나 내분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대조영을 위주로 하는 속말말갈인들도 고구려어를 잘 하였겠지만 시종일관하게 대씨집단을 존중하고 지지했던 고구려유민들은 언어방면에서도 공식용어로 속말말갈의 언어를 사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속말말갈의 언어 즉 부여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결핍하여 그 언어의 연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고구려어를 소개하면서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라 하였고 동옥저에 대해서는 “其言語與句麗同 時時小異”라고 하였으며 穢에 대해서는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言語諸事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라고 하였기에 부여, 고구려, 옥저, 예맥 등은 같은 종족계통에 속하여 있으며 그들의 언어도 다 같은 부여계통의 언어로서 대

8) 『続日本紀』卷十 神龜五年(728) 正月甲寅.

9)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

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읍루를 소개하면서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古之肅慎氏之國也”라고 하여 그 종족유형과 언어가 부여계통의 종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말말갈의 언어는 숙신, 읍루계통의 언어가 아니라 부여계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속말말갈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지금에 와서 극심한 자료의 결핍으로 그 정체를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부여계통에 속하여 있는 고구려어의 연구는 동이제국의 언어연구에 있어서 한걸음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어 李基文교수는 고구려어를 부여어의 대표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고구려어의 고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계통의 언어인 속말말갈어를 알아보려 한다.

고구려어연구의 선구자는 1927년에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數詞의 일치를 발견한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신무라이즈미(新村出)를 꼽을 수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의 李基文, 俞昌均, 辛兌鉉 교수와 일본의 河野之郎, 村山七郎, 井上秀雄 등의 교수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李基文교수의 『韓國文化史大系』에 수록된 『韓國語形成史 5.高句麗語』에서 배운 바가 많다.¹⁰⁾ 李基文교수는 『三國史記 地理志』의 고구려지명에 사용된 고구려어휘 약 80개를 골라내어 그 고구려어휘의 音, 意를 주변 諸언어와 대조분석하였고 그중 약 30개 어휘가 중세한국어와 일치하고 數詞를 포함한 약 20개 어휘가 고대일본어와 일치함을 지적하였다.

이 놀라운 사실은 李基文교수의 아래와 같은 결론이 주판적 추측이 아님을 증명한다.

“고구려어와 고대 일본어사이의 일치는 數的으로는 고구려어와 중세한국어 사이의 그것에 모자라지만, 質的으로는 이를 오히려 凌駕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數詞의 일치다. 현존 고구려어의 수사는 넷인데 그 전부가 고대일본어의 수사와 일치 또는 흡사한 것이다.”

“대개 수사의 일치는 印歐系 세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나 알타이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희귀한 사실임을 우리는 보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어와 일본어사이에 인정된 수사의 일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또 그것은 고구려어가 신라어 또는 중세한국어와 동일한 언어가 아니었음을 실증해 준다.”

“현대 한국어가 단일 언어이므로 고대에 있어도 고구려·백제·신라의 언어가 단일했으리라는 선입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어의 단일성은 통일신라 이후에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0) 李基文, 『韓國語形成史 - 新羅語와 中世 韓國語』 『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1987.

이 연구성과는 그 증거를 인정할만 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 결론은 동이제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민족의 원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중국학계에서는 이런 탁월한 연구성과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1987년 黑河市에서 열린 북방민족문화사학술토론회에서 펠자는 李基文교수의 『韓國語形成史·高句麗語』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적이 있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그후에 지상에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많은 학자들의 중시를 일으키지 못했다.

중국학계에서 고구려어연구를 시작한 것은 遼寧大學歷史學系 教授 徐德源 선생이다. 그는 2005년 『中國邊疆史研究』 제 15권 1期에 『高句麗語言徵識?』이란 글을 발표하여 『三國史記·地理志』의 지명을 분석하면서 약 20개의 고구려어휘가 일본어와의 일치율을 지적하고 고구려족은 고구려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한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펠자는 고구려어의 연구자가 아니지만 李基文교수의 논문을 번역하면서 배운 바가 많았고 대부분 어휘의 삭제에는 찬동하지만 그 중의 한 개 어휘의 삭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여기에 제기하여 여러 학자들의 敎示를 받고자 한다.

그것은 “孔_{遼寧縣本高句麗濟次巴衣縣}”의 “濟次”를 “孔”으로 삭제한 것인데 “孔”은 “乳”의 誤字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두 글자는 字形이 비슷하여 抄錄과정에서 “乳”자의 左上의 획이 누락되어 “孔”으로 잘못 기록될 수 있다. 그 근거는 고구려어의 “濟次”는 일본어의 “チチ”(乳)나 한국어의 “젖”과 그 音, 意가 모두 일치한다. 『三國史記』의 각종판본에 誤刻, 誤寫의 실례로 “五谷郡一云于次吞忽”의 “于”는 “𠂔” 혹은 “𠂔”로 잘못된 것을 “于”로 시정한 것이며 “吞”은 “云”으로 誤刻한 것을 시정한 것이다.

펠자는 소위 발해어란 속말말갈어이며 속말말갈어와 고구려어는 위에서 고찰하였듯이 일본어와 함께 모두다 부여어계통에 속한다고 본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발해의 사절단이 일본을 수접차 방문하였고 사절단 성원중에는 고구려출신인 관리가 많았었지만 그들이 일본에서 고구려어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같은 부여계통의 언어이며 그중에 적지 많은 어휘가 일치한데도 의사 소통이 안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중국어를 실례로 들면 북방사람은 福建이나 廣東에 가면 그들의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들지 못한다. 방언 사이에도 이 정도로 차이가 클 수가 있으니 같은 부여어 계통에 속하는 말을 하는 고구려인과 일본인이 고구려말과 일본말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은 그리 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해야 하겠다. 그 원인은 두 가지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멀어졌고 둘째는 시간상으로 보아 두 종족이 갈라진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李基文교수는 이 시기를 아래와 같이 추측하였다.

“고구려어와 古代日本語 사이에 인정된 수사의 일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며, 이는 고구려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와 동계통의 부여계 언어와 일본어와의 비교적 최근에 있어서 심각한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접촉은 언제 있었을 수 있었던가. 지금까지의 선사연구가 밝힌 바로는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즉 지금으로부터 2300년전경에 北九州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간 사람들의 언어가 부여계 언어라고 생각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2300년전 경이라면 고구려가 망한 때로부터 계산하여도 1000여 년이 넘는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고구려어로 일본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여야 하겠다.

「발해국의言語에 대하여」를 읽고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는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발해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漢語(구두어)를 사용하였고, 발해와 일본의 외교무대에서 사용한 공통언어는 漢語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類聚國史』의 기록을 통해 발해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은 자기 자기들의 ‘村里’나 ‘部落’에서 집거하고 있었고, 발해국의 일반주민 즉,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한인과 접촉하여 한어를 배우거나 사용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유민은 고구려어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말갈인은 말갈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日本紀略』前篇十四(810年5月條)와 『續日本紀』卷三十二(773年조) 기사에 보이는 기사들 들어 발해국의 공식 언어 들 ‘渤海語’라 보고, 이는 ‘고구려어’가 아니면 ‘말갈어’라고 보았다.

그런데 『日本紀略』에는 ‘고구려어’나 ‘말갈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단지 ‘발해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통하여, 만약 발해 사절단이 일본과의 외교무대에서 ‘고구려어’를 사용하였다면, 그들의 국왕이 高麗國王이라고 자칭하기까지 한 발해의 사신 高多佛이 ‘고구려어’를 가르쳤다고 할 것인데, ‘고구려어’라 하지 않고 ‘발해어’라고 한 것은 당시 외교무대에서 사용한 언어가 ‘고구려어’가 아닌 ‘발해어’ 즉 ‘말갈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고구려어’와 ‘말갈어’는 같은 부여 계통의 언어이고 오래 동안 서로 섞였기 때문에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말갈어’는 부여계 언어들 계승한 ‘고구려어’와는 다른 속신계 언어들 바탕으로 하는 알타이 계 동구스어들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자의 언어가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와 다른 부분으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언어학적 친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울러 발해의 언어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1. 『舊唐書 高句麗傳』에 “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라 하고 같은 사서의 渤海靺鞨傳에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이라고 하였기에 속말말갈과 고구려는 같은 부여계통의 종족이며 兩者는 “別種” 즉 同種이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바탕으로 속말말갈이란 부여의 풍속습관을 보유하고 부여의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라고 보고, 이들이 주축이 된 발해국은 부여의 풍속습관과 언어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사료에 나타난 부여의 풍속 습관에 언어까지 포함하여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말갈어는 부여계 언어를 계승한 고구려어와는 다른 속신계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알타이계 동구스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자의 언어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발표자의 견해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발표자의 견해처럼 발해국의 공식용어인 속말말갈의 언어와 고구려어는 모두 부여계통의 언어이며 매우 근사하여 고구려 유민과 속말말갈인들이 교섭하는 때는 언어적 장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면, 굳이 ‘발해어’를 ‘말갈어’로 규정하기 보다는 ‘발해어’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다시 말해 발해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 받고, 고구려에 대한 회복을 스스로 천명하였으며, 대씨일가 스스로도 말갈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공용어는 집권층의 주축이 된 고구려 유민이 사용한 언어 즉 ‘고구려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지 않겠는지요?

3. 기록상으로 보면 신라와 고구려는 245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복변을 침범함으로써 첫 접촉이 이루어졌고, 248년에 신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게 되어 양국간의 교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국간의 교섭에서 의사소통의 주요한 방법은 문서와 언어였을 것이다. 사신의 왕래에 당연히 문서를 지참하였을 것이고 이는 당시 삼국이 한자를 공히 사용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언어가 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음 기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太元二年春 高句麗新羅西南夷皆遣使入貢于秦.”(『資治通鑑』 卷104晉紀 26孝武 太元 2年)

위 사료는 신라가 중국 지역과 교섭한 최초의 기록으로 동진 태원 2년 즉, 377년(奈勿王 22년)의 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중국과 교섭이 없던 신라로서는 불교를 수용하는 등 전진과 교류의 경험이 있던 고구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간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의 형성은 정치적 요인뿐 만 아니라 언어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¹¹⁾

11) 신라와 고구려 간의 언어 소통에 대한 사례는 宣德王 8년 겨울에 金春秋가 고구려 寶藏王에게 군사를 청하는 장면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第5 宣德王 8年)

4.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국제 교류에서도 고구려어를 사용하였던 것 같다. 기록에 의하면 740년 발해 사신 이진몽(已珍蒙) 일행이 일본에 당도하여 이듬해 정월 조회에 참석하였는데, 발해 사신과 함께 신라학어(新羅學語)가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한다.¹²⁾ 신라학어란 언어를 배우고자 신라로부터 일본에 파견된 학생으로 발해 사신과의 통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배석한 인사였을 것이다.¹³⁾ 발해 사신들과 신라학어의 언어가 서로 소통 가능하였기에 취해진 조치로서 발해 사신의 언어가 신라어와 통하는 고구려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구려어를 계승한 발해어에 대한 일본 조정의 인식은 발해에 공식적으로 학생을 파견하여 음성(音聲)을 배우도록 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63년 일본의 송발해사(送渤海使) 판진염숙(板振鎌束)이 귀국 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자 배 안에 이방인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마침 귀국하는 학생 고내웅(高內雄)의 처 고씨와 갓난 아이, 유모를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¹⁴⁾ 여기서 고내웅은 발해에 언어를 배우러 간 일본의 학생으로 유학시 고씨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귀국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다. 그 성씨로 보아 고내웅 또한 일본으로 건너간 고구려계 유민일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¹⁵⁾ 일본은 고구려어를 구사하는 유민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언어와 제도가 같은 발해어를 배우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10년에 일본의 사생(史生) 우숙마장(羽栗馬長)이 습어생(習語生) 등과 함께 발해사의 수령인 고다불(高多佛)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발해어를 배웠다고 하는 기록¹⁶⁾을 통해서도 당시 일본에서 고구려어를 계승한 발해어 학습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2) 『續日本紀』卷 13, 聖武天皇 天平 12年 春正月 戊子朔.

13) 구난희(2005), 「발해와 일본의 교류」, 『새롭게 본 발해사』, 서울 : 고구려연구재단, 139~140 참조.

14)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7年 10月 乙亥 및 卷32, 光仁天皇 寶龜4年 6月 丙辰 참조.

15) 임상선(1999), 『발해의 지배세력연구』, 서울 : 신서원, 173쪽 참조.

16) 『日本紀略』前篇14, 弘仁 元年 五月 丙寅.